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27)¹⁾

허 덕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편집인)

I. 북아메리카

[미국]

1. (2022년 7월 11일)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1)

- 미국 농무부는 식품 시스템 전환 프레임워크(food system transformation framework)를 발표하여 팬데믹 이후 발생한 농식품 시스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 코로나19의 발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서 식품 공급사슬이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식품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이 증가함.
 -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농무부는 많은 재정 투입을 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식품 공급사슬의 혼란이 가중됨.
 - 발표된 정책을 통해 중소규모의 생산자, 소비자, 농촌 공동체 등에 다양한 정책 옵션을 제공하여 회복성이 강화된 식품 시스템을 만들고 함.
 - 식품 시스템 전환 프레임워크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American Rescue Plan Act와 다른 완화 법안을 통해서 재정을 지원받음.
- 식품 시스템 전환 프레임워크는 4가지 목표를 제시함.
 - **(1) (회복력 높은 식품 공급사슬 마련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옵션 제공 및 탄소 배출 감축)** 팬데믹과 공급사슬의 교란은 미국의 식품 시스템이 몇몇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Farm to Fork)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함. 지역 내에서의 식품 공급은 식품가공자로 하여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IDF Kore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26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금 다양한 옵션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또한 지역 내 생산 능력의 강화는 소비자에게 로컬푸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후변화가 식품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음.

- (2) (공정한 식품 시스템 형성과 새롭고 개선된 로컬 시장 선택지 제공) 평균적으로 1달러당 14센트의 식품 가격이 농업 생산자들에게 수익으로 돌아감. 농업 생산자들의 시장 지배력(market power)은 50년 동안 감소함. 현재 몇 개의 육가공업체와 다국적 식품 업체들이 식품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짐.
- (3)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의 많은 가족들이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식품안보가 위협받음. SNAP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제한된 식품 선택지만을 제공하며 건강한 식품으로의 접근성을 낮춤.
- (4) (공정성 강화) 오랫동안 농촌 공동체는 과소평가 되어 지속적인 빈곤에 시달림. 농촌은 식량, 수자원, 에너지를 제공하는 곳으로 단순히 경제적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농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됨. 따라서 농촌 공동체들이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게(more food system dollar) 투자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과소 평가되고 있는 소규모 마을과 공동체들이 부를 축적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함.

○ 프레임워크는 생산(production), 가공(processing), 수집/유통(aggregation/distribution), 시장/소비자(markets/consumers)의 전 단계에서 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한 투자를 함.

- (생산) 중소규모 농가의 공정한 수익을 확보하고 신규 진입 농가의 진입 제한을 낮추고자 함. 또한 미국의 농가가 지역 내에서 가공, 판매하고 그들의 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농업 실천으로 전환을 유도함.
- (가공) 팬데믹으로 인해서 육가공공장 등에서의 가공 부문 병목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중소농가들의 상품 출하가 어려워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농가들이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수집/유통) 수집 및 유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은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임. 소비자들이 로컬푸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구축하여 유통거리를 단축하고자 하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
- (시장/소비자) 팬데믹은 국가적으로 식량 안보의 위기를 가져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식품 시스템을 전환하고자 함.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1)’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3. 2022년 8월 22일자
- 원문출처: 미국 농무부(USDA), “USDA Announces Framework for Shoring Up the Food Supply Chain and Transforming the Food System to Be Fairer, More Competitive, More Resilient” (2022.6.1.)
(<https://www.usda.gov/>)

II. 유럽

[영국]

1. (2022년 8월 23일) 英, 인플레이션 부담에 UHT 우유 판매 증가세 - 저온살균 우유 대비 가격이 저렴해 판매량 증가 전망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국에서 비교적 보관이 용이한 UHT(초고온살균) 우유 판매량이 급증한데 이어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에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AHDB)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초기 봉쇄령에 따른 사재기 현상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한 UHT 우유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완화 이후 판매가 주춤해졌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대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물가상승률이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저온살균 우유 대비 리터당 가격이 저렴해 판매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재료를 구입해 소비자가 직접 만들어 먹는 ‘스크래치 쿡킹(Scratch Cooking)’이 재유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UHT 우유는 물론, 육류, 스프 등 보관이 용이한 통조림 식품 판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英, 인플레이션 부담에 UHT 우유 판매 증가세 - 저온살균 우유 대비 가격이 저렴해 판매량 증가 전망’, 「글로벌 낙농뉴스」 2022년 8월 23일자
- 원문출처 : thecattlesite.com, 8월 20일자

Ⅲ. 아시아

[일본]

1. (2022년 8월 21일)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2021년도 농업물가지수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 7월 29일, 2021년도 농업물가지수※를 발표하였음.

※ 2015년을 100으로 함.

- 농산물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8%, 쌀은 10.9% 하락하였음. 한편, 생산 자재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5% 상승하였음.

○ [2021년 농산물가격지수] 107.9로 전년 대비 2.8% 하락함.

- (쌀) 114.8로 전년 대비 10.9%가 하락하였음. 농림수산성은 가격하락 원인을 2019년산, 2020년산 쌀 수요 감소에 맞춰 생산작물 전환이 진행되지 않은 점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 및 가공용 수요가 감소하면서 민간 재고량이 늘어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봄.
- (채소) 95.0으로 전년 대비 3.9% 하락하였음. 2020년에는 오이, 양배추 등이 이상 기후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출하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함.
- (과일) 128.8로 전년 대비 3.2% 하락하였음. 사과는 2019년산 태풍 피해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2020년 1월~8월 가격이 상승했으나 2021년은 전년 대비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가격이 인하됨.
- (화훼) 106.6으로 전년 대비 5.4% 상승했음.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감소하면서 수요도 감소하여 가격이 떨어졌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수요가 회복하여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봄.
- (축산물) 104.2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음. 계란은 2020년 겨울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공급이 줄어 가격이 상승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 수요 감소에 따라 가격이 떨어졌던 와규 등 수요가 회복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함.

○ [농업생산자재가격지수] 106.9로 전년보다 5.0% 상승함.

- (비료) 101.2로 전년 대비 2.4% 상승했음. 복합비료에서 요소 등 수입 원료 가격이 상승한 것에서 기인함.

- (사료) 111.6으로 전년 대비 14.0% 상승했음. 옥수수 등 수입 원료 가격이 오르면서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되었음.
 - (광열동력) 111.2로 전년 대비 12.2% 상승했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 회복 및 산유국 원유 증산량 감소에 따른 고유가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것에서 기인함.
 - (건축 자재) 119.8로 전년 대비 12.9% 상승했음. 각목, 판재 등 세계적인 목재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승한 것에서 기인함.
- 농산물가격지수를 농업생산자재가격지수로 나눈 농업교역조건지수는 100.9로 전년 대비 7.4% 하락하였음.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은 하락한 반면, 생산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교역조건은 악화되었음.

Ⅱ 식품 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Ⅱ

구분	물가지수	증감률(%)	구분	물가지수	증감률(%)
농산물(종합)	107.9	-2.8	농업생산자재(종합)	106.9	5.0
쌀	114.8	-10.9	가축비	112.2	5.5
서류	124.6	15.1	비료	101.2	2.4
채소	95.0	-3.9	사료	111.6	14.0
과실	128.8	-3.2	광열동력	111.2	12.2
화훼	106.6	5.4	농기구	102.3	-0.1
축산물	104.2	2.2	임차료	105.0	1.2

주: 2015년 =100, 증감률은 2020년 대비 2021년 증감률임.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2021년도 농업물가지수’ ※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3. 2022년 8월 22일자
- 원문출처: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米の価格指数 ▲10.9% 2021年農業物価指数 農水省公表”(2022.8.1.) ,
<https://www.jacom.or.jp/nousei/news/2022/08/220801-60735.php>,
https://www.maff.go.jp/j/tokei/kekka_gaiyou/noubukka/noubukka_y/r3/index.html

Ⅳ. 글로벌

1. (2022년 9월 13일) IDF, 2022년 세계낙농산업동향 보고서에서 2021년은 코로나19 대유행 2년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낙농업계는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며 전 세계 원유생산량(모든 품종)이 2.1% 증가 밝혀

IDF는 지난 9월 12일 인도에서 개최된 IDF WDS(연차총회)를 통해 2022년 세계낙농산업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IDF 주력 출판물인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주요 기관과 IDF 전문가들간의 긴밀한 협력의 산출물로서 세계 전역 50여개국의 원유 생산, 소비 및 교역관련 통계자료를 비롯해 공급 및 수요, 낙농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은 코로나 19 대유행 2년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낙농업계는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며 전 세계 원유생산량(모든 품종)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 1인당 우유 소비량은 2020년 대비 1.4% 증가한 118.2kg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IDF 사무총장은 우유는 연령을 불문하고 특히 어린이와 노년층의 고품질 영양소의 주요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가족과 지역사회에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낙농산업관계자들이 낙농산업의 중요성은 물론 급변하는 세계 낙농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IDF, 2022년 세계낙농산업동향 보고서 발간 - 2021년 전 세계 원유생산량 전년대비 2.1% 증가’, 「Biweekly 세계 낙농동향」 2022년 9월 13일자

- 원문출처 : IDF 본부, 9월 13일자(https://dairy.or.kr/kor/sub01/menu_01.html?pmode=view&table_idx=21208)